# 무주최북미술관, '꾀부리는 토끼' 전시회

## 계묘년 신년맞이 기획초대전 3월 2일까지 진행… 회화 · 조각 등 21점 작품 전시

무주최북미술관에서는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여 오는 3월 2일까지 기획초대전 '2023 꾀부리는 토끼' 전시회를 진행중이다.

조선시대에는 새해를 축하하며 그린 그림을 '세화'라 불렀다. 예술작품 속 소재로 종종 등장하는 친숙한 동물인 토끼는 십이간지 중 네 번째로 행운을 상징하며 모두가 좋아하는 영민한 동물이다.

전시에 참여한 우진청년작가회 작가들(고형숙, 김성석, 김수진, 박지은, 박진영, 송지호, 이올, 이은경, 이일순, 이정웅, 이철규, 이호철, 이효문, 임택준, 장영애, 장우석, 조헌, 조현동, 홍경준, 홍남기, 황나영)은 21점의 다채로운 토끼 작품을 구성하여 전시했다. 한국화, 서양화, 조각, 미디어 등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작가의 개성을 담았다.

새로운 시각의 해석을 통해 재탄생된 2023년 그들의 토끼는 창의적이고 흥미롭게 다가온다. 환상의 세계를 보여주듯 아름답고 화려한 토끼들의 모습을 무주최북미술관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무주군 문화예술과 박선옥 과장은 "전북을 대표하는 현대미술작가들의 다채로운 작품으로 군민들과 함께 2023년 토끼처럼 껑충 뛰어오르길 바라는 마음을 전시에 담았다. 행운과 희망을 상징하는 토끼작품으로 2023년 최북미술관의 다양한 기획 전시를 기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슬기로운 군생활 '뮤지컬 합창대' 성료

##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완주서 복무 중인 군장병 합창 · 연기 배우는 체험교육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이사장 유희태)은 지난 2개월간 진행된 슬기로운 군생활 '뮤지컬 합창대'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뮤지컬 합창대'는 완주군에서 복무 중인 군장병들이 합창과 연기를 배우며 뮤지컬 합창을 완성해 가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이다. 태어나 처음 합창단을 경험해 본 장병들이었지만, 이들은 교육 내내 진지한 모습으로 교육에 임했다. 특히 합창과 연기를 병행하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교육에 임해준 장병들의 마음가짐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결과물이라고 했다.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은 지난 2개월간 진행된 슬기로운 군생활 '뮤지컬 합창대'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 프로그램은 군부대의 특성을 고려해 일과시간 이후 개인정비 시간을 활용해 부대 안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합창이 이런거였군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요즘 합창하는 꿈을 꿉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합창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에는 완주군에서 복무 중인 군장병 30명이 함께했다. 1기는 충무여단 본부 장병 15명, 2기는 충무여단 예비군훈련대 장병 15명 등이다.

교육에 참여했던 군 관계자는 "이런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준 주최 주관 기관에 매우 감사드린다"며 "다음 기회에도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희태 이사장은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없는 군장병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뮤지컬 합창대'와 같은 예술교육프로그램이 계속 이뤄져 보다 많은 완주군의 군장병들이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정월대보름 오곡밥 나누며 건강 기원

## 한식창의센터, 오곡밥 나눔 행사 가져

한식창의센터는 지난 2일 전주 풍남동 주민센터에서 '정월대보름 맞이 오곡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윤철 · 김원주 · 최용철 전주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엄익준 완산구청장과 김도영 주민자치위원장, 김병조 통우회 회장, 장기남 새마을부녀회장 등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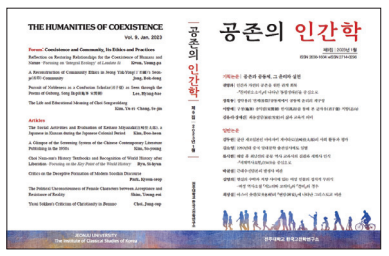
이날 시의원, 주민자치센터 공무원, 새마을부녀회 등 기관과 단체의 도움을 받아 오곡밥과 부럼을 나눠주며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되새기고, 주민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김도영 원장은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식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계승하고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정월대보름의 대표 시절 음식인 오곡밥과 부럼을 나누게 됐다"며 "올 한해 아픈 곳 없이 건강하고, 또 만복을 누릴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식창의센터는 우리 한식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 향토 음식을 계승 · 발전시키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공존의 인간학' 제9집 발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9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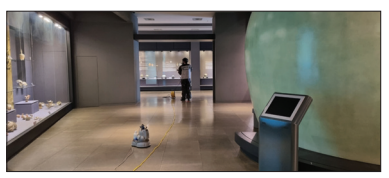
이에 따르면 '공존의 인간학'은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공동체'와 관련한 세계적 수준의 담론 선도를 지향하며, 탈 유교 사회의 인간학과 미래공동체에 대한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 2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연 2회 발간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에 발간된 제9집에는 '공존과 공동체, 그 윤리와 실천'이라는 주제로 한 기획논문 4편과, 일반논문 6편 등 총 10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현재 '공존의 인간학' 10집 발간을 목표로 다양한 학문 성과를 모집 중이다. 수록된 논문은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https://www.jj.ac.kr/icsk)에서 볼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부안청자박물관, 전시관람 환경 개선 · 유물 보존 훈증소독 실시



부안군 청자박물관은 6~7일 훈증소독을 실시한다.

박물관에서는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고, 해충과 유해균에 의해 소장품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훈증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유해균 박멸을 통한 코로나19 예방과 관람객이 안전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소장유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훈증소독은 전시실 및 수장고, 4D특수영상실, 그리고 소장유물 등에 대해 공간을 밀폐한 후 전문가에 의한 전문 약제 살포 및 훈증을 하게 되며, 유해균 테스트를 실시하여 균의 박멸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박물관 1층에 위치한 청자제작실의 경우 나무와 볏짚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초가와 청자 운반 선박 등의 모형과 소품에는 공기 중에 포함된 유해세균과 해충 등의 생물학적 방제를 실시하며, 박물관 전시실 및 전시 유물에 대한 훈증소독과 아울러 수장고 내부와 보관유물에 대한 약제 살포를 진행한다.

/부안=김석진 기자